



## 배당을 생각해야죠

### 1. 9월 분기 배당

#### 3Q 분기배당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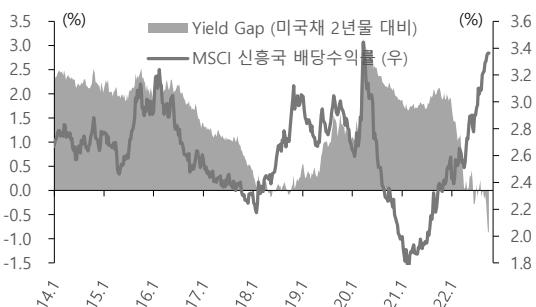
- 9월 분기배당 수취를 위해서는 내일 9/28(수) 까지 주식 매수 필요.
- 3Q 분기배당 수익률 상위종목: 쌍용C&E, SK텔레콤, KB금융
- NAVER, 휠라홀딩스 등도 올해 주주환원정책의 전환으로 분기배당 실시.

Code	종목	배당수익률
A003410	쌍용C&E	1.70
A017670	SK 텔레콤	1.50
A105560	KB 금융	1.08
A018880	한온시스템	0.92
A009240	한샘	0.90
A005490	POSCO 퀄리티	0.89
A096530	씨젠	0.78
A055550	신한지주	0.74

### 2. 금리 상승이 요구하는 배당의 수준

- S&P500 기준 배당수익률은 1.79%로 미국채 금리와의 일드캡은 -2.45%p까지 확대.
- 신흥국 지수 배당수익률은 미국채 금리 대비 -0.87%p 하회. 미 단기채 기대수익률이 4.3%를 상회하면서 배당주 투자는 더 큰 배당수익률이 요구되는 상황.
- 4Q 기말배당 수익률 상위종목 : DG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기업은행 등.

신흥국 배당수익률과 미국채 금리와의 일드캡 역전. 배당 투자는 미국채 금리를 크게 상회해야 유효한 상황..



자료: 유인타증권 리서치센터

## 1. 9월 분기 배당

혹독한 조정을 겪고 있기에 배당투자의 효율을 생각할 시점으로 생각한다. 분기배당 수취의 속도 대응과 배당수익률이 높아진 종목의 바텀을 고민할 시기로 생각한다.

9월 결산법인의 기말배당, 이외 법인의 분기배당 수취를 위해서는 내일 9/28(수)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권리주주 확정기준일을 공시한 종목은 27개(우선주 3개 포함)로 확인된다.

6월 배당종목이 86개임을 감안하면, 금번 분기배당 종목은 과소한 편이다. 기대 배당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 커버리지 follow-up이 유지되는 종목군을 추려보면 13개에 지나지 않는다.

쌍용C&E, SK텔레콤, KB금융지주 등의 분기배당 기대수익률이 1%를 상회하는 점이 눈에 띈다. NAVER는 임직원 주식보상, M&A 시 자사주 활용 제약과 관련해서 주주환원정책을 배당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분기배당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휠라홀딩스도 연초 천명한 5개년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분기배당 지급을 위한 명부폐쇄를 진행했다.

[표1] 3Q 분기배당 예상

Code	종목	DPS				배당수익률
		20.3Q	21.3Q	22.2Q	22.3Q(E)	
A003410	쌍용C&E	110	110	110	110	1.70
A017670	SK텔레콤	-	500	830	800	1.50
A105560	KB금융	-	-	500	-	1.08
A018880	한온시스템	68	90	90	-	0.92
A009240	한샘	-	-	400	400	0.90
A005490	POSCO홀딩스	1,500	5,000	4,000	2,000	0.89
A096530	씨젠	-	200	200	-	0.78
A055550	신한지주	-	260	400	-	0.74
A005930	삼성전자	354	361	361	361	0.67
A000660	SK하이닉스	-	-	300	-	0.36
A097950	CJ제일제당	-	-	1,000	-	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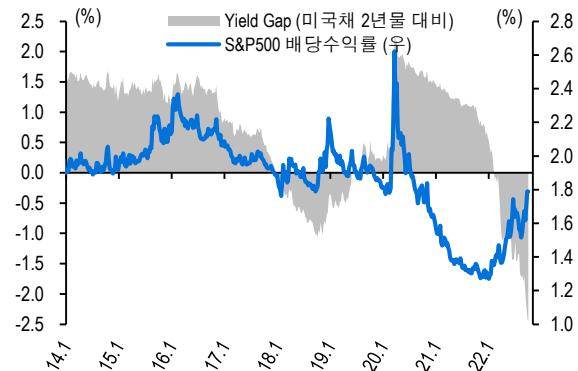
A035420	NAVER	-	-	-	-
A081660	휠라홀딩스	-	-	-	-

## 2. 금리 상승이 요구하는 배당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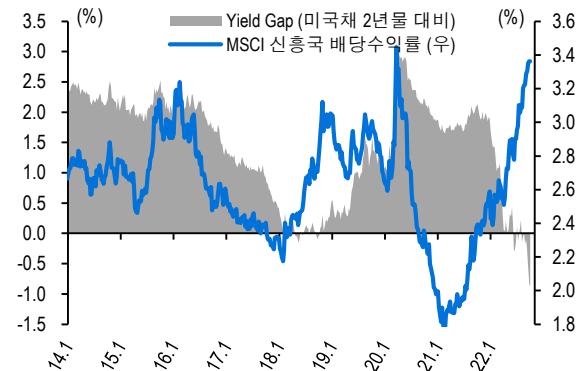
시장금리 상승은 주식자산 보유의 기회비용 수준을 더 요구하고 있다. S&P500 기준 배당수익률은 1.79%로 미국채 금리와의 일드캡은 -2.45%p까지 확대되었다. 18.10월의 마이너스 수준을 넘어선지도 6개월이 경과했다.

신흥국 지수 배당수익률은 3.36%까지 상승해 COVID-19 조정 당시 수준에 근접했다. 과매도 측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미국채 금리 대비 일드캡도 -0.87%p까지 역전되었다.

[차트1] S&P500 기준 미국채 금리와의 일드캡은 확대. 주식자산 보유의 기회비용 수준을 더 요구.



[차트2] 신흥국 지수 배당수익률의 일드캡도 역전. 배당주 투자는 미국채 금리를 크게 상회해야 유효한 상황.



미 단기채만으로도 4.3%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금리 여건에서, 배당주 투자는 기대수익률이 이를 크게 상회해야 유효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내 상장종목의 배당은 여전히 기말배당에 치중되어 있다. 분기배당의 장단 논란을 떠나, 기말 배당수익률 상위종목군은 잔여 3개월 동안 가장 높은 배당액 수취를 기대할 수 있는 세그먼트로, 배당부 수요 유입과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DG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기업은행 등은 해당 컨셉에 부합하는 종목으로 스크린된다.



[표2] 4Q 기말배당 예상

Code	종목	DPS			배당수익률
		20.4Q	21.4Q	22.4Q (E)	
A138930	BNK 금융지주	320	560	630	9.9
A139130	DGB 금융지주	390	630	693	9.6
A002990	금호건설	500	800	725	9.2
A024110	기업은행	471	780	825	8.6
A316140	우리금융지주	360	750	942	8.3
A175330	JB 금융지주	374	599	576	8.0
A298020	효성티엔씨	5,000	50,000	21,000	8.0
A108320	LX 세미콘	1,350	5,400	6,328	7.9
A016360	삼성증권	2,200	3,800	2,459	7.8
A036460	한국가스공사	-	2,728	2,649	7.8
A029780	삼성카드	1,800	2,300	2,400	7.7
A078930	GS	1,900	2,000	3,167	7.6
A082640	동양생명	220	620	377	7.2
A071840	롯데하이마트	1,200	1,000	933	7.0